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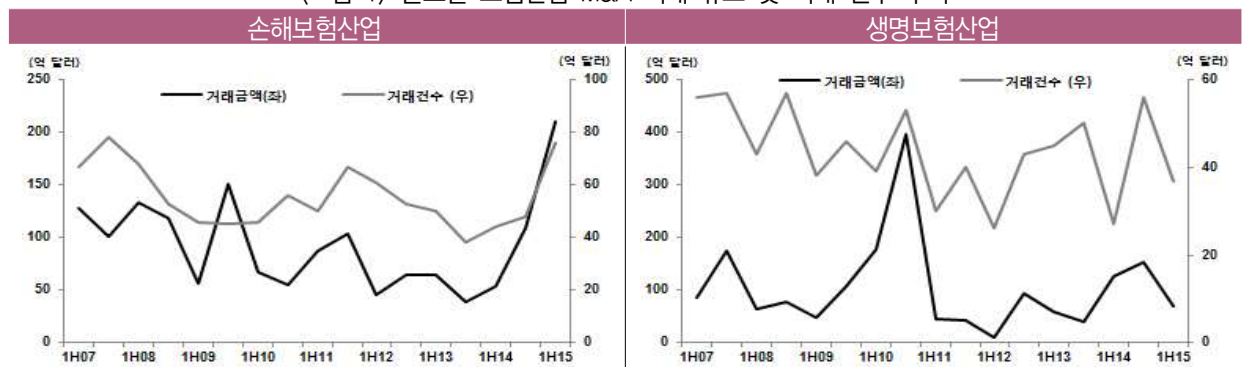
2015년 상반기 글로벌 보험산업 M&A 현황과 특징¹⁾

채원영 연구원

■ 2015년 상반기 글로벌 보험산업 M&A는 손해보험산업(건강보험 포함)을 중심으로 2014년에 이어 증가세를 보였음.

- 2015년 상반기 손해보험산업 M&A 거래금액(Deal value)은 ACE Group의 Chubb 인수, Atena의 Humana 인수 등 대형 거래 급증으로 2014년 상반기 53억 달러 대비 296% 증가한 210억 달러를 기록하였음.
 - 거래건수(Deal Count)도 2014년 상반기 44건에 비해 73% 증가한 76건이 보고되었으며 평균 거래규모(Average deal size)는 2014년 상반기 2억 7,900만 달러 대비 160% 증가한 7억 2,5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.
- 반면 생명보험산업(Life/Annuity) M&A 거래금액은 2014년 상반기 126억 달러대비 44% 감소한 70억 달러를 나타냈음.
 - 거래건수는 2014년 상반기 27건에서 37% 증가한 37건을 나타냈으며 평균거래규모의 경우 2014년 상반기 7억 8,600만 달러에서 31% 감소한 5억 3,800만 달러를 기록하였음.

〈그림 1〉 글로벌 보험산업 M&A 거래 규모 및 거래 건수 추이



자료: A.M. Best(2015. 9).

1) A.M. Best(2015. 9. 15), "Return of the Mega Deal During First Half of 2015", A.M. Best(2015. 9. 16), "Life/Annuity First Half 2015 Global Merger and Acquisition Trends and Analysis", A.M. Best(2015. 7. 9), "Many Triggers Fan the Flames for Larger M&A Deals"를 발췌, 요약함.

- 글로벌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M&A 거래규모 차별화는 저성장저금리 환경 장기화에 대한 업권별 대응 전략의 차이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
- 손해보험산업 M&A 거래 규모가 급증한 것은 저금리 환경 지속에 따른 자본조달 비용 감소 이외에도 수익원 다변화, 리스크관리 효율화,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이익 극대화 등을 위한 대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.
 - A.M. Best는 글로벌 손해보험회사들이 규모의 경제 실현, 자본 효율성 극대화, 가격 결정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M&A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.
 - 또한 수직적 통합과 판매채널 확보, 비전통적인 자본 조달 경로 확보 등도 M&A 거래 증가의 원인으로 볼 수 있음.
- 반면 생명보험산업의 경우 규제 불확실성,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수익 악화 등으로 비핵심부문 매각, 신흥시장 진출 증가 등이 지속되고 있으나 대형 거래보다는 중·소형 거래인 경우가 많아 대형 생명보험회사의 사업구조 재편이 이루어졌던 2013~2014년에 비해 M&A 거래규모가 축소되고 있음.
 - 상품 다각화 및 대형화를 추구하고 있는 손해보험산업과 달리 생명보험산업은 비핵심부문 매각을 통해 저금리 환경을 극복하려 하고 있음.
 - 최근 Genworth는 Goldman Sachs를 통해 생명보험 및 연금 부문 매각을 추진하고 있음.
 - 또한 Equitable Life도 영국지역 연금부문을 Canada Life에 매각하였음.
 - 또한 Solvency II 와 SIFI guidelines 등 규제 강화 추세와 규제 시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생명보험회사들은 대형 인수합병 거래를 회피하고 있음.
 - 반면 저금리 장기화로 영국 및 미국계 생명보험회사의 신흥시장 진출과 자본조달 비용이 낮아진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미국 진출이 증가하는 등 신시장 개척을 위한 국가 간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.
 - 또한 2013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사모펀드 등 비전통적인 매수자들의 생명보험산업 M&A 거래도 지속되고 있음.
 - 생명보험의 사모펀드 인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저금리 상황에서 투자수익률이 하락한 보험회사를 인수하여 피인수사의 자산을 직접 운용, 투자수익률 제고 후 재매각 목적인 것으로 보임.
- 우리나라의 경우 저성장 및 저금리 장기화, 자본규제 강화, 고령화, 업권간 경쟁 격화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됨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수익성 개선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해외진출, 핵심사업 집중 등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함.
 - 보험영업이익 개선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, 언더라이팅 강화 등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중장기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임.

(A.M. Best 등)